

# 준비·진행 엉망... 무안 연꽃축제 '동네잔치' 전략

## 기간 이틀 늘리고도 관람객 고작 4만명 불교계 연대 효과 없고 공사 늦어 빈축

무안 대표 축제인 '2013 무안 연꽃 축제' 기간 고작 4만여 명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대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방문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사실상 동네 축제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는 불교계까지 참여시켜 축제를 공동추진하려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2013년 무안 연꽃축제를 지난 24일부터 5일간으로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개최했으며, 지난해보다 축제기간도 이틀 늘렸다.

올해 군은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꽃이 갖는 불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동 주최를 추진했으나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를 받지 못하면서 5일 동안 4만여 명 관광객들이 찾는데 그쳤다.

군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남 서남권의 대표생태축제로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해남 대항사 등 대항불교 조계종 호남 6대 교구 본사와 함께 개최했으나 축제의 최대 이슈가 된 대항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초청법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숨겼다가 축제 첫날에서야 돌연 취소 방침을 알려 빈축을 샀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청와대에

대통령과 약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뒤 "이후 축제기간 내 참석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각 지역에서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 '힐링' 등 각종 주제로 축제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무안 연꽃축제의 경우 너무 안이하게 축제를 준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제 현장 농산물 판매장에 지역농산물은 거의 없이 다른 지역 특산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험행사장 역시 오후 6시면 모두 폐쇄돼 찾는 이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거기에 올해 연꽃을 보다 더 가까

이 관찰할 수 있도록 데크시설과 물놀이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추진한 시설공사들이 축제 첫날까지도 마무리가 안 돼 관광객들이 무더위 속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축제 첫날 오전까지 행사장 중앙대가 준비가 안 돼 행사진행업체와 관계자들과 뒤늦게 준비하는 소동도 벌어지는 등 축제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에서 온 관광객 김모(58)씨는 "생각보다 꽃이 없고 이것저것이 뒤섞여 대표성이나 상징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지난 25일 목포시 대양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찾은 정종득 목포시장.

## 목포시 '하위직 챙기기'

### 정종득 시장 현장직원 잇단 간담회 격려

3선 시장인 정종득 목포시장이 지방선거 1년 여를 앞두고 하위직 직원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시장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자신을 따라온 하위직 직원과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달 초 시청 상황실로 하수도 준설원, 수도 검침원, 수로원(도로보수)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정 시장은 조만간 주차 단속원, 운전원, 청경 등과도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과의 자리에서 고충을 다들은 정 시장은 '무기 계약직' 명칭 대신 직군은 '공무직'으로 호칭은 '시설 실무원'으로 부르기로 하고, 현행 380명에 이르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기를 진작시켰다. 하위직 직원들의 이야기를 시정에 반영하

것이다.

지난 25일에도 대양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4곳을 둘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설개선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정 시장은 시내 반입되는 1일 40t 가량의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전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산소발생 장치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남해와 북항 하수처리장에 모아지는 하수 찌꺼기를 건조해서 분말형태로 처리하는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느낀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에서도 여건 없이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야 할 시정을 다시 한 번 살피고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내달 3~4일 '고흥 머드림픽'

### 남양면 선정마을 갯벌서 씨름·뽕배 레이싱

고흥군은 28일 "남양면 선정마을 해안방풍림 앞 갯벌에서 오는 8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2013 고흥 머드림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흥 머드림픽은 지난 2011년부터 갯벌과 스포츠를 접목한 새로운 체험 관광 상품으로 개발됐다.

군은 올해는 머드림픽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개선·보완, 관광객들에게는 '힐링',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 창출'을 위주로 올해 축제를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머드 Free-Soccer(풋살+핸드볼+럭비), 머드 씨름, 머드 균형줄다리기, 전통 뽕배 & 갯보트 레이싱 등 7종 경기와 어린이를 위한 머드 보물찾기, 머드풍장, 고기 잡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화장실, 샤워 시설 등 축제관련 편의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영준기자 gju@

## 구례 산동문화관광형시장 명칭

### '지리산 나들이 장터'로 최종 확정

구례 산동5일시장을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융합한 특성화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례 산동문화관광형시장의 명칭이 '지리산 나들이 장터'로 최종 확정됐다.

구례군은 28일 "지난 4~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진행,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심사위원회가 접수된 217개의 명칭에 대해 함축성, 대표성 등을 1차로 평가해 10개를 선정하고, 2차 실무심사와 제안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나들이 장터'는 맑고 깨끗한 브랜드가치를 지닌 지리산으로 나들이 가자는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명칭으로, 시장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개장 예정인 '지리산 나들이 장터'는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구 내 부지 1만3582㎡에 조성될 예정며, 총 83억원을 들여 로컬마켓, 체험광장, 향토노점, 잔디공원 등으로 꾸며진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포스코패밀리의 자체기술력으로 제작된 '제강전로'.

## 광양제철소 자체 기술 '제강전로' 제작

광양제철소는 28일 "생산공정을 위한 주요설비중 하나인 '제강전로'를 포스코패밀리의 자체기술력으로 개발, 제작에 성공해 내년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열연공장으로 가는 슬랩(slab, 평평한 널빤지 모양으로 된 25cm 두께의 철판) 공기에 필요한 새로운 전로(電爐)설비 개발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년여에 걸쳐 패밀리아인 포스코건설과 비에이치아이(BHI)사가 함께 추진해 왔다.

광양제철소 후판부 엔지니어들과 포스코건설, 발전기자재 전기기업으

로 우수한 제조기술과 제작능력을 갖춘 파트너사인 BHI사는 기존 전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워크숍과 아이디어 회의 등을 거치며 '포스코형 전로'를 완성하는데 성공했다.

포스코패밀리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포스코형 제강전로'는 기존의 전로에 비해 강도가 높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과 전로 가동중 발생하는 주변 온도도 포스코패밀리의 전문 조업과 정비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전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함평군 승진인사 직렬 마찰 '잠음'

### 승진후보자가 흠피에 불만 글 올려 이례적 반발

함평군이 최근 단행한 정기인사와 관련 잠음이 일고 있다. 보건소장(5급) 승진을 앞두고 군이 단행한 인사예고가 군의 정원조례규칙과 배치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5·6급 승진을 포함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지난 26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5급인 보건소장과 의회사무과장이 병예복직을 신청하고 없다면장(5급)이 1년을 남기고 공로연수를 신청하면서 3명의 5급 승진 요인이 발생, 마

련됐다.

그러나 보건소장(5급) 사무관 승진인사를 놓고 일부 직원이 강하게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관련 군 관계자는 "인사예고는 어느직렬에서 승진을 시킬건가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그의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기전의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라며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의 결이 되면 그에 따라 최종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릴 간 마찰로 번지고 있다.

보건직 A씨는 이번 인사의 부당함과 시정을 호소하며 직원들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며,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다.

이에 관련 군 관계자는 "인사예고는 어느직렬에서 승진을 시킬건가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그의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기전의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라며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의 결이 되면 그에 따라 최종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 장성군 '1일 버스투어' 만원사레

### 방학 맞아 참가자 크게 늘어

장성군은 28일 "매주 토요일마다 국내·외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1일 버스투어' 참가자들이 최근 방학을 맞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광주역에서 탑승해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고봉총림 백양사를 비롯해 전국 최대 편백숲인 죽령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의 결이 되면 그에 따라 최종결정이 된다.

또 백양사 경내 산책과 피톤치드

삼림욕, 편백 비누체험 등도 마련돼 있다.

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으로 관광객들의 이해와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버스투어는 단순한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오감투어"라며 "지역의 우수자원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투어 참가비는 1인당 체험료 5000원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완도~제주 한일카훼리 1호 해양환경 보전 공로 2회 연속 모범선박 인증 취득

완도와 제주를 오가고 있는 (주)한일고속 소속 한일카훼리 1호(2만 6327t)가 자율적인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회 연속 모범선박 인증을 취득했다. 서남해에서 운항중인 선박 중에서는 최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8일 "한일카훼리 1호는 지난 2009년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후 4년이 지난 올해 해양환경 모범 선박 지정 평가표에 의한 재평가에서도 9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모범선박 대상은 50t 이상 유조선과 100t 이상 일반 선박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

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선박이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에서 70% 이상을 획득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완도해경은 선박들이 해양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선박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등 모범선박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주)한일고속 관계자는 "선사 및 선박 직원들이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자신의 임무를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남해인의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기자·서부취재본부장



2회 연속 모범선박인증을 받은 (주)한일고속 소속 한일카훼리 1호.

## 새 얼굴

### "郡-군민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

#### 정승준 신안군부군수

정승준(57) 신안군 부군수가 최근 취임했다.

정 부군수는 취임사에서 "희망이 샘솟는 천사 섬 신안에서 일하게 된 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공무원들에게는 직원화와 조직결속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서로가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훈훈한 공

직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영광 출신인 정 부군수는 1975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운영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행정자치부 차관비서관실 등 주로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뒤 올해 초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